

천사의 섬 신안, 사계절 축제 '한가득'

지역특산물 병어축제 성료... 먹거리 장터 북새통 여름 전령 수국축제도 만개... 19일까지 체험행사

신안군은 섬과 바다가 지닌 풍요로운 자원을 활용해 연중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지도읍 것갈탄은 일원에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어 제철을 맞아 특별하고 맛있는 '섬 병어 축제'를 개최했다. 4월부터 8월까지 맛볼 수 있는 '병어'는 청정한 신안 앞바다에서 어획돼 신선하고 비린내가 없으며 고소함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신안에서 잡아 올리는 병어는 지역의 특산물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매년 많은 미식가들이 그 맛에 반해 찾아 올 정도다. 이번 축제는 난타 등 다채로운 무대행사와 송가인, 현진우 등 유명 가수 초청공연 등 볼거리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민속놀이체험, 물 풍선던지기, 병어 연 만들기 등 자녀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병어를 맛볼 수 있도록 제공한 1004인분의 병어회무침 비빔밥 무료 시식회는 참석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병어회, 찜 등 다양한 병어 요리가 제공되는 먹거리장터도 운영돼 북새통을 이뤘고 관광객들에게 병어를 배달해주는 택배 주문 시스템도 호응을 얻었다. 신안 해역 병어 잡이 어선은 약 200여척으로 8월까지 연평균 600여톤을 어획해 약 126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또 도초도 지남리에 위치한 수국공원에서 박우량 군수와 서삼석국회의원, 김영록전남도지사 부인 정라미여사를 비롯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 수국축제'가 막을 올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수국축제는 10ha의 공원에서 수수하지만 여름의 전령으로 활짝 핀 수국 200만 송이가 형형색색 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해남경찰서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몰카)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관리자가 없는 관내 송호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27곳에 대해 여성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여성안심스크린을 통해 몰카 범죄 사전차단은 물론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군청 등과 협조 면담위 주요 공영 및 관광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완도군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완도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군에 따르면 완도지역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 가능하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가 해당되고,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술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신선배야4회, 동결배야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을 받았다. 군은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 난임 시술 당 각 1회씩(총3회) 최대 150만 원(회당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이승욱 강진군수와 지역 한 농가가 올해 처음 생산된 체리를 맛보고 있다. 강진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체리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1농가 4.8ha에서 재배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새콤달콤 체리 맛 보세요

4.8ha면적 본격 수확... 연구회 결성 등 농가육성

강진군에서는 인기과수인 체리가 수확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체리는 수년전부터 귀농인들이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강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체리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1농가 4.8ha의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군은 체리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연구회를 결성했다. 난립해 있는 체리품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체리 전문가를 초빙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산 체리가 생산되지 않는 겨울철에도 질레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어 친숙한 과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주산지에

서는 소득 작물로 인기가 높다. 체리를 재배하고 있는 강진 작전면 정현진씨(61)는 "당도가 높고 과실이 비교적 큰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며 "군에서 주최하는 교육과 정보전달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기후가 따뜻해 체리의 맛이 좋다"며 "아열대과수 등 유망과수를 집중 육성한다는 군정방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체리 농가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해남경찰, 여성안심스크린 설치 해수욕장·공중화장실 등 27곳

완도군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완도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군에 따르면 완도지역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 가능하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가 해당되고,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술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신선배야4회, 동결배야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을 받았다. 군은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 난임 시술 당 각 1회씩(총3회) 최대 150만 원(회당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완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 당 각 1회씩 총3회

완도군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완도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군에 따르면 완도지역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 가능하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가 해당되고,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술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신선배야4회, 동결배야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을 받았다. 군은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 난임 시술 당 각 1회씩(총3회) 최대 150만 원(회당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무안군 지자체 기본적 의무 다해야

기지수첩



박준현 부장
제2사회부(무안)

전남도청 인근 도로변에 불에 탄 건물이 흉물스레 수년째 방치되면서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해당 관청인 무안군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런 화재 잔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니 한숨만 나온다. 문제의 건물은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합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수년전 불에 탄 뒤 지금은 사뭇 낡아 있다. 합석 곳곳이 뜯겨 나가 한눈에 보기에 매우 흉물스럽다. 주민들은 밤에는 건물 주변을 지나기가 무서울 지경이라고 한다. 심각한 것은 주변에 초등학교까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가 잇따르는 세상이다 보니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흉물스런 폐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불안감을 준다. 한마디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주민들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수년째 눈을 감고 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더라도 도심 흉물로 변해버린 불탄 폐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불탄 폐가 합석 골조에 불법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행정기관의 관리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가 돼 버린 듯한 느낌이다. 무안군은 도심 흉물로 변해버린 불탄 폐가를 강제철거하든지, 가림막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주민들이 불편함뿐 아니라 범죄의 위험까지 느낀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포기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볼길 바란다.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 메인조감도. /해남군 제공

'희망 100년의 시작' 해남 신청사 기공식

2021년 하반기 완공 목표

해남군은 오는 25일 신축 청사 부지에서 신축공사 기공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랑스런 군민과 함께할 희망 100년의 시작'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공식은 청사 추진 경과보고, 성실시공 다짐선서와 합토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해남군 신청사는 연면적 1만8,601㎡ 규모로 해남읍성과 연계해 '해남루'를 중심으로 군청사(7층)와 군의회청사(5층)가 신축된다. 주요시설로는 1층과 2층은 주요 부문을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해 대회의장(복합체 등), 대회의실과 해남역사관 및 해남부가 조성된다.

또 3층부터 6층은 업무공간인 실과 7층은 CCTV관제센터, 구내식당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군은 지난 4월 조달청 계약의뢰 후 5월 23일 개찰을 통해 예비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이어 적격심사를 거쳐 6월5일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어 착공예와 함께 지난 10일 750일의 일정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총 공사비는 431억3,647만원으로 오는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민과 희망 100년의 시대를 함께할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사 신축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무안군의회 양파수확 농촌일손돕기

무안군의회는 최근 양파가격의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로읍 의산리 한 농가를 찾아 양파수확에 힘을 보탤다. 16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일손돕기를 지원한 농가는 76세 고령의 부부로 농

작업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양파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박준현 기자



강진 과수원 정밀예찰·현장조사

강진군은 국가 검역병해충의 일종인 '자두곰보병'과 '과수화상병'에 대해 관내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농가신고제 운영에 따라 의심증

상 발견 시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남균 소장은 "병 발생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최선이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농어촌공사무안신안지사 농촌 일손돕기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직원 20여명은 최근 무안군 일로읍 광암마을의 한 농가를 방문해 500평에 달하는 양파수확을 돕는 등 농촌 일손돕기를 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완일 지사장은 "양파가격이 폭락해 농가에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며 "양파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앞방에 효능이 우수한 양파소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